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집단체조창작가들과 한 담화

1987년 4월 11일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5 돐을 맞으며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준비한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을 보았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은 사상적내용도 좋고 구성편집도 잘되였습니다. 이번에 집단체조창작가들과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새로운 집단체조를 훌륭히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집단체조창작가들을 만난 기회에 집단체조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집단체조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체육적기교가 잘 배합된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체육형식입니다.

집단체조를 발전시키는것은 청소년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 되자면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다방면적인 지식,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다방면적인 지식,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풍모입니다. 청소년학생들이 이런 공산주의적풍모를 가지게 하는데서 집단체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집단체조는 청소년학생들에게 건장한 체력과 함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줍니다. 청소년학생들은 자기 한사람이 동작을 잘못하면 집단체조에 손상을 줄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집단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됩니다.

집단체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집단체조는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당이 내세운 로선과 정책, 그 관철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력사와 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형상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는 또한 그 내용이 체조와 률동, 음악과 미술이 하나로 결합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표현되기때문에 직관성과 호소성도 높습니다. 집단체조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게 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게 됩니다.

집단체조는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적극 이바지하

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집단체조를 많이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을 다른 나라들에 보내여 집단체조를 창작보급하게 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서로 지지성원하면서 친선의 뉴대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집단체조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기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지난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집단체조창조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인민상계관작품들인 《천리마조선》, 《로동당의 기치따라》, 《조선의 노래》,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하여 대기념비적인 집단체조들이 수많이 창조되였으며 그 과정에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과 기본형상수단인 체조대와 배경대, 음악의 발전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주체적인 집단체조는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여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집단체조분야에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는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집단체조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력사적위업과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에 맞게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집단체조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나라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집단체조의 내용과 형식을 시대적요구와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집단체조의 내용과 형식을 시대적요구와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우리 나라 집단체조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당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체조대, 배경대, 음악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의 사상주제적내용은 그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사상주제적내용이 혁명적이면 집단체조의 사상예술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며 인식교양적의의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우리의 집단체조는 마땅히 당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집단체조가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당적이며 혁명적인 집단체조로 되자면 당과 수령에 대하여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도 하나의 작품인것만큼 다른 모든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당과 수령에 대하여 잘 형상하는것이 첫째가는 요구로 나섭니다. 집단체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하여 잘 형상하여야 작품의 사상적대를 바로세울수 있으며 사상예술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집단체조에서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집단체조에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집단체조가 담아야 할 기본내용입니다. 집단체조에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형상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집단체조로 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하고있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집단체조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에 매 시기 제기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집단체조의 내용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고 그 호소성과 전투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에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도 실감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불굴의 투쟁모습을 집단체조에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에서 기본은 체조대이며 체조대는 집단체조의 가장 중요한 형상수단입니다. 체조대가 여러가지 체조동작과 대형변화를 잘하여야 집단체조가 씩씩하고 기백있게 될수 있으며 체조적인 성격이 잘 살아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체조에서는 씩씩하고 기백있는 체조동작과 기교가 높은 체조동작을 많이 창작하여 받아들이였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에 나오는 쇠물체조와 륜체조가 좋습니다. 녀학생들이 륜을 가지고 여러가지 체조동작을 하는 모습은 체육적이면서도 예술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춤과 률동이 너무 많고 체조동작이 다양하지 못하며

기교가 높지 못하고 비슷한 동작이 반복되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집단체조《번영하는 주체조선》에서 하는 전회동작은 판대기우에서 하는것과 운동장바닥에서 하는것이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큰 학생이 하고 하나는 어린 학생이 하는것뿐입니다.

체조동작이 다양하지 못하고 기교가 높지 못한것은 창작가들이 집단체조를 창작할 때마다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그전에 하던 좋은 체조동작을 잘 쓰지 않으며 새로운 체조동작을 창작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체조대에서는 무용화된 동작을 창작하지 말고 체조적인 동작을 많이 창작하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교가 높은 체조동작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교가 높은 체조동작은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육체가 조화롭게 발달될수 있게 창작하여야 합니다.

기교가 높은 체조동작을 창작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맡아 수행할 청소년학생들의 체육적기교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교가 높은 체조동작을 창작하여도 집단체조출연자들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우기 집단체조에 출연하는 청소년학생들이 계속 바뀌는 조건에서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그 어떤 체조동작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집단체조모체학교와 집단체조구락부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그 어떤 고급한 체조동작도 능숙하게 해낼수 있는 체조수를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조동작을 창작하여 받아들인다고 하여 이미 창작된 좋은 체조동작을 줴버려서는 안됩니다. 당 제 4 차대회때와 제 5 차대회때를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 창조된 집단체조에는 좋은 체조동작이 많았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지난 시기에 하던 륜, 곤봉, 봉체조와 같은 좋은 체조동작을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새로운 체조동작을 계속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조대에서는 소도구와 기재도 집단체조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체육적인것을 계속 리용하면서 새로운것을 창안하여 리용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집단체조를 창조할 때마다 형식을 새롭게 해보라고 하면 체육적인 소도구와 기재는 만들어 리용하려고 하지 않고 예술적인 소도구와 기재만 만들어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조가 씩씩하지 못하고 박력이 없으며 예술화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체조대에서는 체육적인 소도구와 기재를 많이 창안하여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조대에서는 대형구도와 체조수법, 체조동작구성에서 반복성과 류사성,

도식성을 없애야 합니다. 대형구도와 체조수법, 체조동작구성에서 반복성과, 류사성, 도식성이 있으면 집단체조장면이 서로 대조를 이룰수 없으며 형상에서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집단체조의 사상예술성과 체육적기교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조대에서는 대형구도, 체조수법, 체조동작구성에서 반복성과 류사성, 도식성을 철저히 없애여 장면들이 대조되게 하며 체조대의 형상에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조대의 의상도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체조대의상의 형식과 색갈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감정에 맞아야 하며 해당 장과 절의 사상주제적 내용과 출연자들이 리용하는 소도구와 기재의 성격, 그들의 나이와 성별에 잘 어울려야 합니다. 체조대의 의상은 또한 체조동작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편리하고 간편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장별로 대조가 명확하고 화려하고 밝아야 합니다.

배경대는 집단체조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표현하는 중요한 형상수단의 하나입니다. 배경대는 여러가지 그림과 글자 그리고 립체적이며 률동적인 형상으로 체조대와 음악이 표현하지 못하거나 형상하기 어려운 사상과 주제를 설명해주거나 보충하여줍니다. 배경대는 집단체조가 하나의 서사시적인 작품으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배경대가 평면적인것으로부터 점차 립체적이며 률동적인것으로까지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배경대의 형상수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더 잘 모셔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우러러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인민의 념원과 의지를 반영하여 집단체조에서는 배경대에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고있습니다. 배경대에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게 된것은 집단체조발전에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이며 배경대형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집단체조창작가들은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 모시지 못하고있습니다. 집단체조를 보면 수령님의 업적을 보여준다고 하여 거의 모든 장과 절마다 배경대에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고있습니다. 집단체조에서 장과 절마다 배경대에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다고 하여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더 잘 형상되는것은 아닙니다. 집단체조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관통되있는 조건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장과 절마다 배경대에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하게 모실수 있는 조건과 방법론이 똑똑히 서있지 못한 조건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자주 모시면 오히려 정중성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배경대에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고 정중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경대를 정지상태에 있게 하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재간을 피울수도 없습니다.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자주 모시게 된것은 창작가들이 집단체조창조사업을 쉽게 하려는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지금 무대예술부문에서도 배경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고 만세를 부르면 다 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집단체조의 내용구성으로 보아 가장 요긴한 대목에 뒤번정도 모셔야 합니다.

배경대에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배경대의 대형화, 률동화, 상징화, 립체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을 보면 배경대의 그림과 글을 대형화한것은 좋은데 률동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점이 많습니다. 기교적으로 움직이는것은 동물을 형상한 장면을 비롯하여 몇개 장면뿐이고 다른 장면은 거의다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배경대에 형상한 동물이 움직이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움직이기때문에 관람자들의 시선을 별로 끌지 못하고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배경대의 모든 그림과 글을 대형화, 률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그것이 해당 장면의 특성에 맞게 살아움직이는것처럼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배경대에서는 지난 시기에 하던 숨쉬기배경대와 같은 좋은것도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경대의 상징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배경대에서 상징수법을 옳게 적용하지 못하기때문에 어떤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고있는지 명백하지 못합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의 배경대에서 당을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당기발이 휘날리는 그림으로 형상하였는데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저 다층살림집우에 당기발을 꽂아놓은 그림이라고 할것입니다. 배경대에서 당을 형상하는 경우에는 상징화하여 당마크를 중심에 새기고 그 량옆에 《주체의 혈통을 계승한 당》같은 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주자는 내용이 명백하게 됩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어떤것을 상징수법으로 형상하겠는가 하는것을 많이 연구하여 배경대의 상징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배경대의 립체화, 과학화도 실현하여야 합니다. 배경대도안을 립체감이 나게 그리고 새로운 기재도 창안하여 받아들이며 레이자기재를 비롯한 최신과학기술기재도 리용하여야 합니다. 배경대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은 미개척분야나 같은것만큼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배경대를 화려하게 하여야 합니다. 배경대에서는 아름다운 꽃이나 화려한 색갈을 가지고 재간을 피워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배경대를 화려하게 하자면 도안채색과 색종이인쇄를 밝고 화려하게 하여야 하며 발광색종이와 화려한 색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음악은 체조대, 배경대와 함께 집단체조의 3 대구성요소의 하나입니다. 음악은 체조대와 배경대에서 표현하기 힘든 사상정서적감정을 보충해주며 집단체조의 형상수준을 높여줍니다. 집단체조에서 음악은 체조대와 배경대의 조화로운 통일을 보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음악은 체조대와 배경대의 률동과 장면변화의 계기를 지어주며 그것이 하나의 흐름속에서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은 집단체조에서 지휘자나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단체조에서 음악편성을 잘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집단체조에서 음악은 그 특성에 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집단체조를 보면 음악을 집단체조의 특성에 맞게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경축장에 노래 《경사로세 인민의 명절》을 넣었는데 그 노래는 느리고 처진 감이 나기때문에 경축장의 양상에 맞지 않습니다. 경축장 같은데서는 느리고 처진 감이 나는 노래를 주지 말고 밝고 씩씩한 음악을 주어야 살아날수 있습니다. 제 2 장 《어머니당을 노래합니다》에서도 음악이 장면에 맞지 않습니다. 제 2 장의 음악을 《내 삶이 꽃펴난 곳》과 같은 덕성을 주제로 한 노래를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였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투적인 당에 대하여 형상하는 집단체조의 장면에서는 음악도 그에 맞게 기백이 있고 전투적인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2 장에서 우리 당에 대한 전투적인 노래를 몇곡 선택하여 연주하였더라면 집단체조에서 보여주자는 사상이 명백하게 안겨올것입니다. 집단체조에 덕성을 주제로 한 음악을 쓸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경대에서 가사를 주고 악단에서는 곡만 힘있게 연주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집단체조에서 음악을 그 특성에 맞게 편성하자면 창작가들이 작품의 전반사상뿐아니라 매 장과 절의 내용과 체조형상에 정통하고 그에 알맞는 음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에서 음악은 체조대에 복종되여야 합니다.

음악이 체조대에 복종되여야 한다는것은 음악을 체조대에서 형상하는 모든 동작들에 맞게 편성하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체조창작에서 먼저 음악을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체조동작을 창작하지 말고 집단체조의 근본요구와 작품의 흐름에 맞게 먼저 체조동작을 창작한 다음 음악을 거기에 맞추라는것입니다. 배경대나 음악은 어디까지나 체조대의 형상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음악을 체조대에 복종시키면 집단체조가 무용화, 예술화되는것을 피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음악편성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살리는 원칙에서 하면서도 음악을 체조에 복종시켜 집단체조의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단체조음악을 씩씩하고 장중하게 연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음악에 방창을 많이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음악에 방창을 많이 넣으면 집단체조가 예술화될수 있기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텔레비죤으로 집단체조를 하는것을 보고 방창이 너무 많기때문에 한번 말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을 보니 확실히 방창이 많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에서는 처음부터 방창이 나오는데 가사가 잘 알리지도 않습니다. 집단체조음악을 지금처럼 합창도 하고 녀성독창과 남성독창을 번갈아가며 하다가 다시 합창을 하는 식으로 편성하면 집단체조음악의 특성이 살아날수 없으며 집단체조와 예술작품의 한계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음악에서 기본은 취주악입니다. 집단체조음악을 취주악으로 연주하면 더 씩씩해보이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인민군열병식때에 군악대가 2 시간나마 취주악으로 행진곡을 연주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들을수록 씩씩한 맛이 납니다. 그전에 우리 나라에서 집단체조를 처음 할 때에는 음악에서 취주악을 많이 썼지 방창은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단체조를 할 때에는 취주악연주를 기본으로 하면서 방창은 꼭 필요한 대목에 몇곡 넣어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의 형상수준을 높이자면 총연출편집을 잘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의 내용이 혁명적이고 체조대, 배경대, 음악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총연출편집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은을 낼수 없으며 작품의 질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총연출편집은 집단체조의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며 어느 부분을 살리겠는가 하는것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매 장면에서 노리고있는 기본문제

를 푸는데 지향시켜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집단체조의 장면들이 서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도록 하는것입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에서는 총연출편집을 이런 원칙에서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작품이 노리는 대목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반복성과 류사성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에서 어린이들이 제 3 장 마지막부분에서도 나오고 제 4 장 첫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은 형상수법에서 반복입니다. 장면들사이의 대조관계를 고려하지 않다보니 어린이들을 제 3 장 마지막부분에 출연시켜 상모춤을 추게 하고 그 다음장인 제 4 장 첫 부분에 또 출연시켰기때문에 어린이들을 귀엽게 보이게 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제 4 장을 통하여 고조시키려던 계기를 놓쳐버리고말았습니다. 상모춤을 어린 학생들이 추게 한다 하여 큰 학생들이 추는것보다 매력을 더 끄는것은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상모춤을 추는 장면보다 제 4 장에서 어린이들이 달려나오는 장면이 더 매력이 있을것입니다.

총연출편집에서는 체조대와 배경대, 음악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집단체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3 대구성요소인 체조대와 배경대, 음악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집단체조의 3 대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지 못하고 그것이 제가다리로 놀게 되면 관중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없으며 그들과 호흡을 맞출수 없습니다. 총연출에서는 어느 장면에서는 체조대의 기교를 보여주며 어느 장면에서는 배경대에 시선이 가게 하겠는가 하는것과 같은 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게 편집을 잘하여야 합니다. 례를 들어 배경대에서 화려한 장면이 펼쳐질 때에는 거기에 시선이 갈수 있게 체조대에서는 잔재간을 부리지 말고 이미 진행한 동작을 반복시키거나 일반동작만 하게 하며 체조대의 기교를 보여주려 할 때에는 배경대에 시선이 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체조대에서 소리를 치는것도 배경대와 같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의 제 6 장 《조국을 통일하고 삼천리강산을 노래부르자》에서 체조대학생들이 배경대학생들과 같이 소리를 치게 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제 4 장 《노래하자 인민의 락원》에서도 어린이들이 《야!》하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나올 때 배경대학생들까지 같이 소리를 치게 하였더라면 더 큰 효과를 볼수 있었을것입니다.

체조대, 배경대와 음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음악이 체조대와 배경대를 잘 안받침해주도록 하는데도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총연출편집에서는 음악이 매 장들에서 체조대와 배경대를 잘 안받침해 줄뿐아니라 장, 절사이의 련계를 잘 지어주어 공간이 없도록 하는 문제도 바로 풀어야 합니다.

총연출편집에서는 집단체조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것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을 살려야 사람들의 심리에 맞겠는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연출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곧 창작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중화하여야 합니다.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체육의 한 분야인 집단체조도 마땅히 대중화하여야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집단체조를 대중화하는것은 그자체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집단체조는 말그대로 집단적으로 하는 체조인것만큼 몇몇 사람이 체조동작을 잘한다고 하여 잘되는것이 아닙니다. 집단체조의 발전수준은 거기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의 체조수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집단체조를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고등중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집단체조를 널리 진행하는것입니다.

학교들에서 집단체조를 널리 진행하자면 그것을 맡아 지도할 교원들을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교원들에게 집단체조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전문집단체조창작기관에서는 교원들을 위한 집단체조강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집단체조와 관련한 여러가지 참고서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 그들의 기술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겠습니다.

학교들에서 집단체조를 널리 진행하자면 학교들에 륜, 뛸줄, 곤봉과 같은 집단체조기재를 잘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학교들에서 륜, 뛸줄, 곤봉과 같은 체조기재만 있으면 자체계획에 따라 집단체조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학교들에서 집단체조를 널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사로청조직들에서는 모든 학교들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과외체육활동요강을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장악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체조경연대회를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모든 학교들에서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경연을 통하여 집단체조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를 대중화하자면 그것을 시, 군을 단위로 하여 널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 군들에서 4.15 를 비롯한 중요한 국가적명절을 계기로

하여 집단체조를 하면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는데도 좋고 명절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을것입니다. 지난날 북청군과 안변군, 강서구역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군중적운동을 벌려 운동장을 꾸리고 집단체조를 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여 다른 시, 군들에서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집단체조의 내용과 규모를 바로 정하고 집단체조를 널리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는 체조대와 배경대, 음악이 결합되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종합적인 체육형식이기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자면 많은 자재와 수단이 요구됩니다. 자재와 수단이 없이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집단체조를 창조할수 없으며 그것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없습니다.

집단체조를 위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는데서는 체조기재와 의상, 색종이 같은것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기재와 의상, 색종이 같은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원료와 자재를 잘 대주어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곤봉이나 륜, 봉같은 체조기재는 몇개의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학교들에 공급해주게 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기재를 경량화, 현대화하며 이미 만들어놓은 기재와 의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합니다. 집단체조를 할 때마다 이미 쓰던 체조기재와 의상을 다 줴버리고 새것만 가지고 하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집단체조의 물질적토대는 이미 마련된 토대에 새로운것을 하나하나 보충해나가는 방법으로 쌓아야 합니다.

집단체조를 할수 있는 경기장을 잘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좋은 경기장이 있어야 집단체조를 배경대까지 구성하여 할수 있습니다. 도, 시, 군들에 경기장을 잘 꾸려놓으면 집단체조를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집단체조를 할수 있는 경기장을 군중적운동을 벌려 건설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 조직사업을 잘하면 지방자재를 가지고도 훌륭한 경기장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도들에서는 경기장을 꾸리는데서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모든 시, 군들에 경기장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집단체조창작단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창작단은 집단체조작품을 창작하고 보급하며 우리 나라 집단체조를 전망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집단체조창작단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좋은 집단체조작품을 계속 창작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집단체조의 본보기나라로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체육교류를 더욱 활발히 벌리고 그 나라들에 우리 식의 집단체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서도 집단체조창작단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창작단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집단체조창작단 일군들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창작단 일군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로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의 질적수준은 창작가들의 자질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의 자질이 높아야 좋은 집단체조를 창작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가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집단체조창작가들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신념화하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부문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 그에 정통하며 집단체조와 관련한 기량발표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높은 창작적재능을 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창작단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체육지도위원회가 집단체조창작단에서 집단체조를 창작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는 체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창작단에서는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계획적으로 창작하며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학교들에 나가 청소년학생들의 체육적기교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작품심의체계도 바로세워야 합니다.

집단체조작품에 대한 심의체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본창작으로부터 부분별 창작과 총연출편집안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창작과 창조의 전과정을 집체적이며 유일적인 원칙에 따라 심의할수 있게 세워야 합니다.

집단체조작품을 심의할 때에는 집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작품이 정책적요구와 형상적요구를 다같이 옳게 반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아

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집단체조의 사상주제적내용이 당의 로선과 정책, 시대적요구에 맞는가, 집단체조의 특성을 살리는 원칙에서 체육적기교수준이 높게 형상되였는가, 체조대, 배경대, 음악이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특색있게 형상되였는가, 집단체조작품이 해당 행사의 성격에 맞게 창작되였는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측면을 집체적으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집단체조심의위원회는 집단체조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권위있는 실무일군들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작품에 대한 대중적인 합평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집단체조작품에 대한 대중적인 합평은 창작가들과 집단체조와 관련되여있는 모든 성원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창작단 일군들이 집단체조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보급하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인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이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면하여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을 빨리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의 주요한 결함은 무용화, 예술화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체조대의 체조동작과 음악을 당장 다 뜯어고칠수는 없습니다. 이제 4.15 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기때문에 체조동작과 음악을 다 뜯어고치면 4.15 행사를 보장할수 없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을 구성편집과 체조대의 체조동작은 그대로 둬두고 음악의 속도를 당기는 방법으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서정적인 노래를 씩씩한 노래로 바꾸고 취주악을 위주로 하면 체조대의 동작이 빨라져 집단체조가 한결 씩씩하고 기백이 있어 보일것입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에 나오는 노래들을 검토하여보고 바꿀것은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경축장에 나오는 노래 《경사로세 인민의 명절》은 느리고 처지는 감이 있기때문에 밝고 힘있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바꾸어야 합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을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로 끝내면 시작과 마감이 조화롭게 통일될수 있습니다.

집단체조 《번영하는 주체조선》의 배경대글자와 그림도 비례가 맞지 않거나 장면과 잘 맞지 않는것은 바꾸는것이 좋겠습니다. 배경대에서 제 1 장 《어버이수령님을 노래합니다》라는 제목글자를 만경대고향집을 그리고 그우에 새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글자만 크게 새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목글자와 만경대고향집을 같이 새기니 제목글자의 효과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음해에 내놓을 집단체조작품을 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해는 공화국창건 40 돐이 되는 해인것만큼 《공화국이 걸어온 40 년》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체조를 준비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창건 40 돐과 관련한 집단체조를 창작할 때에는 창작가들에게 요구성을 더 높이자고 합니다. 동무들은 당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지금부터 준비사업을 잘하여 다음해에는 더 좋은 집단체조를 창작하여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집단체조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얼마전에는 집단체조창작단창립 15 돐에 즈음하여 집단체조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모든 집단체조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당의 높은 신임과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